

기고



강순팔 호순군의회 전 의장

새로운 일상 뉴노멀(New Normal) 시대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세상이 달라졌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감과 피로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방지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부모들도 문제지만 혼자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출근하고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어서 하루 종일 온라인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단국대 권역외상센터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 내 외상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불화가 심화하고 이로 인한 의도적 사고의 빈도가 증가했다"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아동 학대와 아동 방임 징후가 증가했으며, 가족 구성원 간 부정적인 감정 표현 빈도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탓에 가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 30대의 경우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할 곳이 없으니 직업도 없고 취준생에 머물게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다고 한다. 취업기회도 없고 시험 등이 연기되어 스펙 쌓기도 어렵고, 취업정보 교환도 끊기고, 인맥 교류도 어려워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둡지만 한 것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50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인 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들이 제2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상대로 가면 무엇을 해도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60,70대의 경우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고, 모처럼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밀려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곧 끝이 날 듯하면서도 코로나 19는 종식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면서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각각 돌아보면서 국가나 사회적 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대두되었다.

이에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어

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해야 우리 모두 살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머치는 시대가 아닌 대면이 아닌 비대면인 온라인 시대에 강제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 온라인 강의나 비대면 수업의 문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일에 적응된 우리들로서는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대인관계의 축소는 가족과 밀착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품 등의 배달 증가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음식물 포장재 등에 집중되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고 환경 문제에 더욱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것이고 이런 현상이 폐비우스의 띠처럼 되풀이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니 적응도 안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갔던 코로나 이전의 세계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한 살아야 한다.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모두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만 한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올 한가위 연휴에는 가고 싶은 곳은 잠시 잊어야 한다. 코로나 19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를 앞당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건강한 위생 습관을 준수하는 일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봄보다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투명한 가을 분위기는 정(情)을 느끼게 하며 친근감을 주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향해 해맑게 핀 코스모스와 붉은 잎으로 누렇게 단풍든 가로수를 보면 정녕 가을은 봄보다 아름답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가을이라는 계절 속에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생각이 스며들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은 불평도, 기만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진실하다.

사람은 목적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가을은 온 산천의 수많은 단풍들로 우리를 일깨워 주

고 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단풍 한 잎과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보잘 것 없는 나뭇잎을 보면서 삶의 소박한 진리를 발견한다면 참 좋을 것인데,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풀벌레 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 또 맑고 투명한 하늘을 올려다 볼 때 인생을 다시금 뒤돌아보면서 내일을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 그런지 모른다.

우리는 나와 가족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모든 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사회공동체 일원임에 감사하게 된다. 세상을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투정을 부리며 생활하면서 살아간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세상을 믿을 하나로 진실 되게 살아가는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늘 세상의 경쟁이라는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 가을 자연에 점차 동화되어 갔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요즘은 거리두기로 인한 도시거리는 한산해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억어가는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미래도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되고, 오늘의 내 모습도 세심히 살펴보게 되며, 다른 이의 삶에 대한 관심도 더해진다.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고 마음의 여유를 생각하면서 올해 설계한 목표를 점검하고 가슴에 잔뜩 쌓인 욕심도 내려놓음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을처럼 아름다운 당신이 되었으면 한다.

국종균/광주북부소방서행정지원팀장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fi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